

2021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의 개최와 의의



작성자 : 장은하 연구위원, 윤지소 부연구위원, 박윤정 연구원(이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들어가며: 세대평등포럼의 개요

- 1975년 제1차 유엔세계여성회의가 멕시코에서 개최된 이후, 코펜하겐(1980), 나이로비(1985), 북경(1995)에서 각각 2차에서 4차까지의 세계여성회의가 개최됨.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는 189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가 북경선언문을 통해 ‘여성복지, 빈곤, 장애, 차별 등을 해결하고 다음 세기로 나아가기 위해 협력·연대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12개 주요 부분의 전략목표와 행동 계획으로 구성된 ‘북경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 및 동등한 참여를 촉구함.
-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이 되는 해로써, 유엔 여성기구(UN Women)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를 기념하고 북경에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을 ‘성평등을 향한 전환의 해’로 선포함. 아울러 북경행동강령 채택 후 25년이 지난 오늘날 완전한 평등을 달성한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다시 한번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대평등포럼(Generation Equality Forum, GEF)”을 개최하기로 함.
- 동 포럼을 위해 멕시코와 프랑스가 공동 의장국으로 활동하기로 함. 멕시코는 1975년에 최초로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한 국가라는 점에서 공동 의장국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현 마크롱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성평등 정책에 적극적인 점이 공동 의장국으로 선정된 배경에 있음.

- 2020년 5월 멕시코시티에서의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7월에는 파리에서 본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9월 유엔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2021년으로 순연됨. 이에 따라 2021년 3월 29-31일 멕시코시티에서의 킥오프 회의가 개최되었고, 2021년 6월 30일-7월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대평등포럼 본 회의가 개최됨.
- 세대평등포럼 본 회의에서는 각국 정부, 민간 기업, 시민단체, 청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북경행동강령의 완전한 이행과 새로이 부상하는 글로벌 성평등 이슈 대응하는 행동과 책무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됨. 특히 세대를 아우르고(intergenerational), 교차적(intersectional) 요인들을 반영하여 전 세계 여성과 여아를 위한 평등, 리더십, 기회를 가속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세대평등포럼은 물리적인 포럼개최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포럼의 구성과 합의 내용을 포괄하여 지칭되어 지고 있음. 본 브리프에서는 세대평등포럼의 구성과 운영방식, 그리고 2021년 7월 본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소개하고, 기후변화와 분쟁 심화, 청년참여 등 새로이 부상하는 글로벌 성평등 이슈들을 망라하는 세대평등포럼(GEF)의 의의와 향후 글로벌 여성의제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세대평등포럼의 아젠다(6개의 행동연합과 여성평화안보협약)

- 6개의 행동연합(Action Coalitions)
 - 세대평등포럼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향후 의제로 다음 6개 영역을 선정하고, 각 영역에서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민간 기업을 아우르는 행동연합(Action Coalitions)을 구성함. 이를 통해 향후 성평등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치를 파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함.

< 6개 행동연합 >

- ◆ 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 ◆ 경제 정의 및 권리 (Economic justice and rights)
- ◆ 자기몸 결정권 및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Bodily autonomy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 ◆ 기후정의를 위한 여성주의 활동 (Feminist action for climate justice)
- ◆ 성평등을 위한 기술과 혁신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Gender Equality)
- ◆ 여성주의 운동과 여성 리더십 (Feminist movements and leadership)

- 여섯 개의 행동연합에 공통적으로 크로스커팅되어야 할 이슈로는 재정(자금 지원), 젠더규범 변화(남성과 남아 참여를 통한), 법과 정책 개혁, 교육, 성인지 데이터와 책무성, 교차적 차별 철폐, 구조적 불평등 개선을 통한 시스템 변화 등이 포함됨.
- 이번 세대평등포럼의 철학이 “세대를 아우르는 성평등 실현”임을 반영하여, 행동연합의 아젠다는 청년 여성과 청소년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행되었으며, 각 행동연합의 활동은 여아와 여자 청소년의 권리에 중점을 두어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지원에 관한 협약(Women, Peace & Security and Humanitarian Action (WPS-HA) Compact)
 - 세대평등포럼의 또다른 합의 사항으로는 인도적지원에 있어서의 여성평화안보 활동을 촉진하는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지원에 관한 협약(WPS-HA Compact)임. 전 지구적으로 재난과 분쟁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취약성도 증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중요성 또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6개의 행동연합 구성과 더불어 이 이슈에 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인도적위기 상황에서의 여성의 보호와 권리 확보를 약속함.

세대평등포럼 운영방식

- 세대평등포럼은 핵심그룹, 시민사회 자문단, 청년 작업반,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의 협업체제로 운영됨.
 - 핵심그룹(The Core Group) : 포럼 내 의사결정 기구이며 유엔여성기구(UN Women), 프랑스, 멕시코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 두 명(선진국, 개도국 각 1명)으로 구성됨.
 - 시민사회 자문단 (The Civil Society Advisory Group to the Core Group) : 다양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민사회의 우선순위가 세대평등포럼의 결과물에 반영되도록 핵심그룹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 세대평등 청년 작업반(The Generation Equality Youth Task Force): 북경+25의 기념과 세대평등포럼 진행과정에 청년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세대평등포럼 진행의 모든 순간과 단계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논의를 주도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Multi-Stakeholder Steering Committee): 시민사회, 각국 정부, 사기업, 기타 이해관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핵심그룹(Core Group)에 의해 구성됨. 세대평등포럼의 구성, 계획, 실행에 기여하며, 전략적 자문을 제공함.

4. 세대평등포럼 결과문서

- 세대평등포럼에서 도출된 결과 문서로는 6개의 행동연합에서 합의된 “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가속화 계획(A Global Acceleration Plan for Gender Equality)”과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지원에 관한 협약(WPS-HA Compact)이 있음. 2021년 3월 멕시코에서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주요 아젠다와 목표가 결정되었으며, 모든 아젠다는 2026년 달성을 목표로 함.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대평등포럼 본회의 개회식 (2021. 6. 30)>



출처: UN Women/Fabrice Gentile

1) 6개 행동연합이 도출한 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가속화 계획¹⁾

-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가속화 계획
 - (활동 1)젠더기반폭력 철폐를 위해 1)더 많은 국가 및 지역행위자들이 국제 및 지역협약을 비준하고; 2)공공 및 민간 부문은 증거기반 법·정책·활동을 수립하고 및 지원함 --> 2026년까지 5천5백만의 여성과 여아가 젠더기반폭력을 금지하는 법과 정책을 갖춘 국가에서 살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활동 2) 인도주의적 환경을 포함하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젠더기반폭력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업, 민간 기업, 여성인권단체의 증거기반 예방전략의 이행과 자금지원 이행 및 확대 --> 2026년까지 국가 정책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예방을 위한 증거기반 전략을 갖춘 국가의 수가 50% 까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활동 3) 젠더기반폭력 생존자를 위한 생존자 중심의, 포괄적이며, 양질의, 접근성 높은 서비스 수립 및 지원 확대 --> 2026년까지 더 많은 여성과 여아들이 젠더기반폭력 대응을 위한 경찰, 사법, 보건, 사회정의 분야의 통합 지원(multi-sectoral) 계획이 수립된 국가에 살게 됨.
 - (활동 4) 젠더기반폭력 철폐를 위한 여아·여성 단체에 대한 공여자금, 책임 등을 포함한 지원 강화 --> 2026년까지 젠더기반폭력에 대응하는 다양한 여성단체, 활동가, 운동을 위한 자금지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50%까지 확대함

1) 세대평등포럼 킥오프 회의 행동연합 보고서 (https://forum.generationequality.org/sites/default/files/2021-03/AC_Acceleration%20Plan.Final%20Draft%20%28March%2030%29_EN.pdf) (2020. 3. 30)

- 경제 정의 및 권리(Economic justice and rights) 가속화 계획

- (활동 1) 2026년까지 성인지적 공공·민간 돌봄서비스, 법·정책 개정, 최대 8천만 개의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는 무보수 돌봄노동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포괄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국가 수 증가.
- (활동 2) 빈곤선 이하에 사는 여성의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2026년까지 공식 및 비공식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법적, 정책적 환경조성 및 여성 참여 촉진.
- (활동 3) 2026년까지 토지, 성인지적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여성이 대표인 기업 등을 포함하여 생산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및 통제 확대--> 토지와 주택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진 여성의 숫자가 7백만명 증가, 공식 및 비공식 금융시장의 참여도에 있어 젠더격차 6% 감소,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참여를 포함하는 국가 여성경제역량강화 국가 프로그램이 최소 50% 증가, 여성이 대표인 기업의 수가 25%까지 증가
- (활동 4) 2026년까지 빈곤선 이하에 사는 여성 및 여아의 수가 8,500만 명까지 감소하도록 성인지적 거시경제계획, 예산개혁 및 부양책을 포함하는 양질의 공적사회보호제도 마련 및 실행

- 자기몸 결정권 그리고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Bodily autonomy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가속화 계획

- (활동 1) 2026년까지 5천만 명의 아동·청소년·청년에게 학교 안팎에서 종합적인 성교육 확대
- (활동 2) 2026년까지 5천만 명 이상의 청소년 여아 및 여성에 대한 피임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제한적 정책 및 법적 조치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보장
- (활동 3) 젠더규범변화 및 권리인식 증가를 통해 2026년까지 2억 6천만 명의 여아,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몸, 성적체성, 재생산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또한 2026년까지 최소 20개 국가에서 자기몸 결정권과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RHR)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법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냄.
- (활동 4) 자기몸 결정권과 성재생산건강 및 권리(SRHR)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단체, 여성인권단체, 여성주의 단체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함

- 기후정의를 위한 여성주의 활동 (Feminist action for climate justice) 가속화 계획

- (활동 1) 2026년까지 젠더정의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지원을 위한 공적, 사적 글로벌 기후금융 비율의 증가. 특히 성인지적 양다자 기후금융 비율을 65%까지 확대할 것.
- (활동 2) 2026년까지 환경 거버넌스 및 녹색경제부문에서 의사결정 및 리더십 위치에 속한 여성과 여아 비율 증가
- (활동 3) 2026년까지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복원력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경감 및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하고 지역기반 협력 모델과 토지권 보장.
- (활동 4) 2026년까지 19개 국가에서 젠더환경통계를 활성화를 통한 정책 사례 확대.

- 성평등을 위한 기술과 혁신(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gender equality) 가속화 계획

- (활동 1) 2026년까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성 향상과 보편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모든 세대에 걸쳐 젠더 디지털 격차를 절반 이상으로 축소
- (활동 2) 페미니스트 기술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50%까지 확대하여 여성 혁신가 리더십을 지원하고, 여성과 여아의 긴급한 니즈에 대응
- (활동 3) 혁신분야의 생태계 변화를 위한 신규 네트워크 및 벤치마크 구축을 통해 기술 및 혁신 분야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을 두 배로 증가
- (활동 4) 2026년까지 온라인 기술기반 젠더기반폭력과 차별에 대응하는 정책이행과 문제해결을 통해 정부와 기술관련 기업의 책무성을 증진함.

- 여성주의 운동과 여성 리더십 (Feminist movements and leadership) 가속화 계획

- (활동 1) 2026년까지 트랜스(trans), 간성(인터섹스, intersex), 논바이너리(non-binary)의 주도로 활동하는 단체를 포함하는 여성 및 여성주의(페미니스트) 운동, 단체에 대한 글로벌 연간 지원기금을 두 배로 증가함
- (활동 2)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시민영역을 확대, 보호하고 여성 및 페미니스트 인권보호가와 평화활동가를 지원함(트랜스젠더(trans), 간성(인터섹스, intersex), 논바이너리(non-binary) 포함).
- (활동 3) 2026년까지 여아, 여성, 페미니스트, 트랜스(trans), 간성(인터섹스, intersex), 논바이너리(non-binary)의 의미있는 참여, 리더십, 의사결정력을 증가하기 위해 다음 노력을 경주함: (1) 모든 공적인 영역과 경제 영역의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gender parity) 촉진 (2) 여성주의적, 젠더 변환적(gender transformative), 포용적 법과 정책 촉진 및 확대
- (활동 4) 청소년 여아와 젊은 페미니스트 리더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의미있는 참여를 위해 구체적이고 유연한 재정, 기술 및 기타 자원을 지원함

2)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지원에 관한 협약(WPS-HA Compact)²⁾

- 이 협약은 1995년 채택된 북경행동강령과 2000년도 채택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협약 1325를 계승하는 것으로써, 평화와 안보를 재설계하고 인도적지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를 체계적이라고 의미있게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특히 여성평화안보와 인도적지원 활동에 관한 기존의 약속들을 이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존 WPS-HA의 약속들의 이행을 위한 자발적 모니터링 과정 구축, 기존의 WPS-HA 이행체계, 네트워크, 파트너십, 역량에 대한 조율 강화, 여성평화안보 아젠다와 인도적활동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자금지원, 인식, 가시성 제고 등의 사항들을 포함함.

2) <https://forum.generationequality.org/women-peace-security-and-humanitarian-action-wps-ha-compact> 참고하여 작성(접속일 2022. 1. 17.)

나가며: 세대평등포럼의 의의³⁾

이번에 개최된 세계평등포럼에서는 2026년까지 성평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감한 성평등 공약과 글로벌 5개년 이행계획이 합의됨. 본 브리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포럼에서 도출된 의제와 이행 계획들은 급진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측면이 강하며, 각국 정부, 구호단체, 시민단체, 청년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목표 이행을 위해 미화 4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지원을 약속함. 이번 세대평등포럼의 주요 특징과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코로나 19 영향) 이번 포럼은 코로나19가 여성과 여아에 미치는 불균형적이고 부정적 영향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짐.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창궐은 기존에 존재하는 성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동이 제한되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함. 여성들은 통상 무보수 돌봄노동과 더불어 저임금 및 비공식 분야에서 종사하는 비중이 남성들보다 높는데,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의 경제적 취약도가 증가함. 아울러 유색인종 및 원주민 여성과 청년 역시 복합적인 위험 및 장벽에 직면해 있음. 이번 세계평등포럼의 결과는 이러한 위기와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특히 유엔여성기구를 비롯한 여성주의자들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여성들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도록 성인지적(gender-responsive) 부양책(stimulus) 및 복원 계획(recovery plan)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기존 목표와의 연장선)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 각 행동연합 분야에 있어서 향후 5개년동안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가속화 계획(Global Acceleration Plan)이 발표됨. 이 계획은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다기 보다, 기존의 목표들을 달성을 촉구하면서 새로이 부상하는 글로벌 의제들을 포함하는 성평등 로드맵을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존 목표와의 차별성) 각 행동연합에서 도출한 “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가속화 계획” 특징은 목표 달성 시한과 수치를 제시하여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임. 각 행동연합의 계획에서는 2026년을 목표달성의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행의 목표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함.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비롯한 최근의 일련의 글로벌 목표의 이행에 있어서 통계와 수치가 중요해 지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에는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성별분리통계가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목표의 급진성) 각 행동연합에서 도출된 글로벌 가속화 계획은 그 내용과 목표가 매우 급진적인 특징을 보임. 북경행동강령이후 글로벌 여성의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독자 목표로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보다 큰 개발목표의 일부라는 점과 다른 목표들과의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을 보임. 그러나 이번 세대평등포럼은 북경행동강령 이후 최초의 젠더관련 국제합의이며 각 행동연합의 글로벌 가속화 계획은 보다 과감한 워딩과 목표로 구성됨. 특히 이전 여성관련 글로벌 목표에서는 포함되지 못하였던 “자기몸 결정권(bodily autonomy)과 성적 권리(sexual rights)” 등이 명확히 언급됨으로써 기존의 북경행동강령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됨.

3) <https://forum.generationequality.org/> 참고하여 분석함 (접속일 2022. 1. 17.)

- (청년 참여)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포럼에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기업가, 노동조합, 예술가, 학술키테, 그리고 사회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청년(youth)들은 별도의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각 논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함. 이는 본 포럼의 명칭에서도 상징하는 바와 같이 향후 여성의제는 세대에 구애받지 않고 달성되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이면서 세대간을 연결하는(inter-generational)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자금 약속) 포럼 폐회식에서는 가속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미화 400억 달러의 자금지원이 약속됨. 성평등 발전과 1995년 북경행동의제의 달성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재정부족이 지적되어 왔으며, 따라서 이러한 약속은 여성과 여아 권리를 위한 자원 조달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 세대평등포럼의 폐회식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자선단체는 각각 미화 210억 달러, 130억 달러, 45억 달러 지원, 그리고 UN 및 지역기구는 합산 미화 13억 달러 지원을 약속함. 이처럼 과감한 공약 외에도 440개의 시민사회단체와 94개의 청년주도 단체는 강력한 정책 및 프로그램 이행을 약속함. 포럼 주최 측은 현재까지 약 1,000개의 공약자가 확인됐으며 향후 5년간 더 많은 이들이 합류할 것이라고 예상함.
- (국내 이행) 북경행동강령 25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글로벌 여성아젠다의 방향 설정을 위한 세대평등포럼은 유엔과 전 세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야심차게 준비되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행사가 연기되었을 뿐 아니라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세션이 온라인 진행됨에 의해 가시성도 확보되지 못했다는 큰 아쉬움을 남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대평등포럼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우리 정부나 국내 시민단체, 그리고 청년단체의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음. 그러나 이번 포럼의 아젠다는 청년, 기술, 환경, 성적권리 등 향후 국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의제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국내 및 외교 정책 수립 및 이행시에도 이를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대평등포럼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팔로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 세대평등포럼 웹사이트 <https://forum.generationequality.org/>
- 세대평등포럼 킥오프 회의 행동연합 보고서 https://forum.generationequality.org/sites/default/files/2021-03/AC_Acceleration%20Plan.Final%20Draft%20%28March%2030%29_EN.pdf